

고성에서 월급받아 속초서 쓴다

고성군청 공무원 149명(32%) 속초 거주 ... 141명은 고성으로 주민등록 위장전입

일주일에 5일 고성서 점심 먹는 게 고작 지난해 10월 통계...현재는 더 증가한 듯

지난해 말까지 인구 3만명선을 유지하던 고성군이 새해 들어 불과 두달 사이에 무려 691명의 인구가 줄어든 가운데, 군청 공무원의 30% 이상이 속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사 결과 공무원 8명이 주소를 속초에 두고 있으며, 141명은 속초에서 거주하면서 주소만 고성군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49명이다. 현재

는 이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을 속초시에 둔 공무원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실제거주는 속초에서 하면서 주소만 고성군에 둔 경우는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문제는 주소를 어디에 뒀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실제 생활을 속초에서 하면서 고성지역 상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149명의 공무원이 결혼을

해 자녀 1명씩을 뒀다고 가정할 경우 대략 500명이 속초에서 생활하는 셈이다. 이들은 아침 밥을 속초에서 먹고 출근해 고성에서는 점심을 먹은 뒤, 퇴근 후에는 속초에서 저녁밥을 먹고 술자리도 한다.

결국 고성군에서 월급을 타서 일주일에 5일 정도 점심 식사만 고성에서 하고, 나머지 모든 소비는 속초에서 한다는 말이 된다. 이 때문에 '고성에서 월급받아 속초서 쓴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 당시 함명준 의원은 "지금 공무원 관외 거주자가 141명으

로 나와 있다"며 "자료를 보니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이런 데가 비율이 높다. 관외를 주도하는 실과가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또 "공무원들이 생활권을 속초에 두고 돈을 써 나간다고 봤을 때 고성군 경제는 엄청나게 큰 손실"이라며 "고성에서 월급 받아 속초에서 쓴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함형완 군의원은 "인구시책은 당장 주민등록상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거주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주소를 고성에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

제로 고성에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자녀교육과 전세권설정, 주택 문제 등으로 속초로 주소를 옮기거나, 실 거주를 속초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며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디에서 살던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가운데 141명은 고성 인구 늘리기를 위해 주소를 고성군으로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고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난 해소 등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봄철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지난 2일 16개 유관 기관 및 군부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봄철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가 열렸다.

고성군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16개 유관 기관 및 군부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봄철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11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 설명 및 산불

예방을 위한 기관별 업무 협조 요청, 산불방지 대책 종합토의 등 주요 협의 내용을 골자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황중국 군수는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크고 작은 산불을 진화 할 수 있었고 감사 드린다"

며 "앞으로도 민·관·군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했다.

또 고성군은 "2011년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고성군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

고성군은 최근 이상한파 및 고유가 등에 따른 전력사용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린청사를 구현하기 위해 2011년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사용해 온 평균 사용량대비 4.2% (55,814kwh)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꾸준히 에너지 절감을 추진해 주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사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및 LED 조명기기 교체 등 대규모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개인 냉·난방 사용 금지, 승강기 사용 제한, 실내 적정온도 유지(동절기 18℃이하, 하절기 28℃이상), 불필요한 조명기기 사용 억제, 각종 전산장비 미활용시 절전 조치 등 공무원의 능동적 행태개선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청사 ESCO(대기전력차단시설)사업과 청사내 차단도어와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무원 행태 개선 등의 방법으로 2009년 사용량 대비 0.91%의 에너지를 절감해 보통교부세 6백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최광호 기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개최

지난 4일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2011년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가 열렸다.

박승근 기자



DMZ 생물권보전지역 설명회

고성군은 지난 3일 오후 2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발전연구원 주관으로 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선정관련 강원도 관리계획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승근 기자